

체임·실직비관...40대 가장들 안타까운 자살

96.12.10

전반적인 경기불황속에 부도업체가 속출하는 가운데 종업원의 체임과 실직을 비관해온 하청업체 대표와 40대 실직자가 잇따라 목숨을 끊

었다. 지난 8일 오전 6시30분께 대구시 남구 봉덕3동 1338 우건직(44·철근 조립업)씨 집 안방에서 우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 김아무

개(39)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. 경찰은 건설 하도급업자인 우씨가 종업원 임금 6천여만원이 체임돼 고민해 왔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자

금사정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. 또 같은날 오전 7시10분께 대구시 동구 신암1동 김용재(42·무직)씨 집 안방에서 6개월전 실직된 이후 우울증에 시달리다 부인마저 가출한 것을 비관한 김씨가 목을 매 숨졌다. 대구/홍대선 기자